

## 케이옥션 2025 년 10 월 경매

10 월 29 일, 수요일 오후 4 시 신사동 본사에서 개최

- 한국 추상미술의 뿌리와 세계 동시대 미술을 한 자리에
  - 한국 근현대 마스터즈, 천경자, 김환기, 김창열, 도상봉, 이우환, 박서보, 윤형근
    - 선과 행위의 기록 이건용, 남춘모, 최병소
  - 캔버스를 넘은 오브제의 확장, 백남준, 프랭크 스텔라, 우고 론디노네

오는 10월 29일(수)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케이옥션 본사에서 10월 경매가 개최되며, 총 88점, 약 106억 원 상당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번 경매에는 김환기, 윤형근, 박서보, 하종현, 이우환 등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들이 만들어낸 미학과 더불어 로버트 인디애나, 로이 리히텐슈타인, 백남준, 프랭크 스텔라 등 시대를 초월한 작품들이 고루 출품되어 한국 미술의 현재와 세계 미술의 연결점을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근원인 김환기의 작품은 <무제>를 비롯해 <5-II-68 III>, <산월> 등 5점이 경매에 오르고, 이우환의 작품은 <바람과 함께 S8708-5>, <바람으로부터>, <조용> 등 7점이 새주인을 찾는다. 또 박서보의 <묘법 No. 150218>과 <묘법 No. 051120> 그리고 하종현의 <접합 20-64>, 윤형근의 <Umber-Blue>, 정창섭의 <묵고 No. 91110> 등은 수행과도 같은 반복의 행위를 통해 물질을 넘어 정신의 세계를 탐구한 미학을 보여준다. 몸의 움직임과 리듬이 만들어낸 선의 흔적으로, 행위가 곧 회화가 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이건용의 <Bodyscape 76-1-2021>과 남춘모의 <Stroke-Lines 22-46>도 경매에 오른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 김창열의 작품도 4점 선보인다.

로버트 인디애나의 <LOVE (Red/Blue)>는 팝아트의 정수이며, 멜 보크너의 <What Were You Thinking?>은 단어 자체를 조형의 재료로 삼아 '말의 물질성'을 드러낸다. 조지 콘도 <Radiant Person>과 로버트 롱고의 작품 <Dancing Trio I>과 <Dancing Trio II>는 팝 이후 세대가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에 산드로 키아, 엔초 쿠키 등 유럽의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이 더해져 예술이 언어·감정·기호 사이를 넘나드는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매 출품작을 경매 전 직접 볼 수 있는 프리뷰는 10월 18일(토)부터 경매가 열리는 10월 29일(수)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열린다. 프리뷰 기간 중 전시장은 무휴로 운영되며 작품 관람은 예약 없이 무료로 가능하다.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 경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케이옥션 회원(무료)으로

## K Auction

가입한 후 서면이나 현장 응찰, 전화 또는 온라인 라이브 응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경매가 열리는 29일 당일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매 참관이 가능하다.

### ▶ 주요 출품작

천경자는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인물 표현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한 화가이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내면과 정서를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선으로 형상화했다. 출품작 <자바의 여인>은 천경자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며 얻은 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낯선 문화 속 여성의 아름다움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천경자 Chun Kyungja 1924 - 2015  
자바의 여인  
color on paper  
41×31.5cm | 1986

3억3000만~6억 원

화면 속 여인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녹색과 황금색이 어우러진 색채는 이국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가는 단순한 초상 이상의 인물 심리 표현에 주목하며, 외유(外柔) 속 내면의 강인함을 강조했다. 또한 배경의 붉은색과 황토색의 대비는 인물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여성의 생명력에 깊이를 더한다. 이 작품은 천경자가 보여준 '여성의 자의식'과 '색채의 미학'이 응축된 대표적인 예로, 현실과 이상,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녀의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김환기의 <무제>는 그가 뉴욕에서 구축한 후기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작가가 평생 탐구한 색과 점의 우주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화면 중앙의 푸른 원은 마치 우주 혹은 생명의 기원을 상징하듯 깊은 명상적 울림을 주며, 이를 둘러싼 점들은 별빛처럼 흩어져 리듬감 있는 조화를 만들

## K Auction

어낸다.



김환기 Kim WhanKi 1913 -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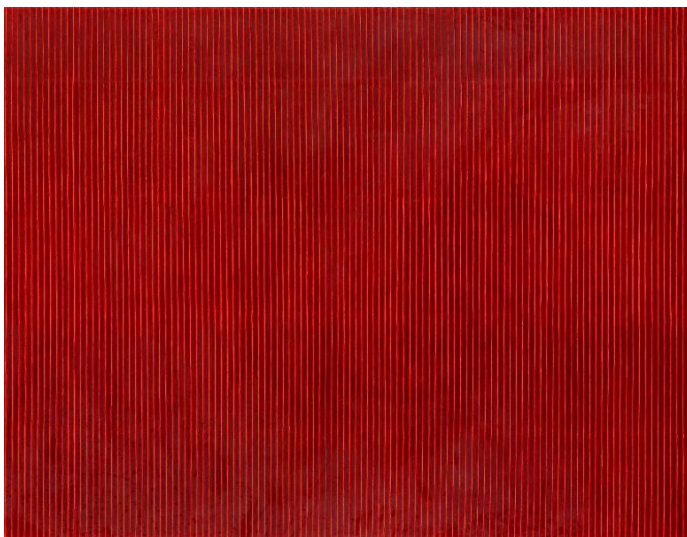
무제

oil on cotton

120×85.5cm | 1969

7억5000만~20억 원

화면 상단과 하단의 색띠들은 구조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면서도, 마치 한국 전통 섬유나 자수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질감으로 동양적 정서를 환기시킨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형식 실험을 넘어, 존재와 자연,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임을 보여주는 깊은 사유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출품작은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김환기 10주기 기념전'에 출품된 이력을 지닌 작품이다.



박서보 Park SeoBo 1931 - 2023

묘법 No. 150218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30×170cm | 2015

4억2000만~6억7000만 원

<묘법 No.150218>은 박서보가 오랜 세월 동안 탐구해온 묘법 회화로 화면 전체를 채운 붉은 선들은

## K Auction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작가의 호흡과 손의 리듬이 응축된 수행의 흔적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색채 묘법을 시작한 박서보는 2000년 도쿄화랑 개인전 이후 단풍의 색채에 감응해 원색을 도입하면서, 작가는 자연의 생명력과 정신적 치유의 개념을 화면에 담기 시작했다. 이번 출품작 <묘법 No.150218>은 단풍의 깊은 붉은빛이 화폭에 가득 담긴 작품으로, 관람자에게 내면의 평온과 감정의 치유를 전한다.

| LOT | 작품사진                                                                                | 작가명      | 작가영문            | 생몰년         | 작품명                | 재료                              | 크기 × cm              | 연도        | 낮은한화        | 높은한화          |
|-----|-------------------------------------------------------------------------------------|----------|-----------------|-------------|--------------------|---------------------------------|----------------------|-----------|-------------|---------------|
| 8   |    | 남춘모      | Nam TchunMo     | b.1961      | Stroke-Lines 22-46 | 캔버스에 아크릴                        | 100×72.7cm (40호)     | 2022      | 20,000,000  | 50,000,000    |
| 23  |    | 윤형근      | Yun HyongKeun   | 1928 - 2007 | Umber-Blue         | 리넨에 유채                          | 37×24.5cm            | 1975-1976 | 100,000,000 | 250,000,000   |
| 26  |    | 김창열      | Kim TschangYeul | 1929 - 2021 | 물방울 PA83032        | 리넨에 유채                          | 90.9×72.7cm (30호)    | 1983      | 250,000,000 | 350,000,000   |
| 32  |   | 하종현      | Ha ChongHyun    | b.1935      | 접합 20-64           | 마포에 유채                          | 116.8×91cm (50호)     | 2020      | 220,000,000 | 350,000,000   |
| 34  |  | 이우환      | Lee UFan        | b.1936      | 바람으로부터             | 캔버스에 안료                         | 116.8×91cm (50호)     | 1983      | 430,000,000 | 800,000,000   |
| 35  |  | 이우환      | Lee UFan        | b.1936      | 바람과 함께 S8708-5     | 캔버스에 안료                         | 130.3×162.2cm (100호) | 1987      | 900,000,000 | 1,500,000,000 |
| 44  |  | 정창섭      | Chung ChangSup  | 1927 - 2011 | 묵고 No. 91110       | 마포에 닥종이                         | 110×200cm            | 1991      | 50,000,000  | 120,000,000   |
| 76  |  | 백남준      | Paik NamJune    | 1932 - 2006 | TV Cello           | 비디오 설치, 3 TV 모니터, 2 채널 비디오, 컬러, | 35×52×120(h)cm       | 1995      | 85,000,000  | 300,000,000   |
| 77  |  | 로버트 인디애나 | Robert Indiana  | 1928 - 2018 | LOVE (Red/Blue)    | 폴리크롬 알루미늄                       | 91.4×45.7×91.4(h)cm  | 1966-2000 | 560,000,000 | 1,000,000,000 |

- 끝 -